

다국적학생들의도시코펜하겐, (International Student City Of Copenhagen)

“젊은시절에자신에대해서알아가고오래지속할수있는우정을만드는기회”이문구는 1920 년대 프랑스파리에서파리를다국적학생들의도시로만들려했던캠페인, CIUP (CitéInternationaleUniversitaire de Paris) 의기본철학이었습니다.

2013 년, 코펜하겐은도시한중심에위치한, Sundby Metro St, Ørestad, 을중심으로 1920 년대프랑스파리에서실천하려했던캠페인과매우비슷한목표를가지고있습니다.

대략 5000 명의학생들을수용할수있는공간을가지고있으며, CIUP (CitéInternationaleUniversitaire de Paris)가준비했던것처럼, 많은다국적문화행사들또한풍부하게주최될것입니다.

코펜하겐을다국적학생들의도시로만들려하는이캠페인은코펜하겐을다국적학생들에게생동적이고따뜻한집과같은곳으로거듭나게하는데큰공헌이될것입니다.

2012 년덴마크에는대략 18000 명의다국적학생들이있으며, 대부분의학생들은코펜하겐에서생활하고있습니다. 통계에따르면, 18000 명의다국적학생들은대략 5000 명의노르웨이국적, 3000 명의스웨덴국적, 1500 명의독일국적, 1500 명의발틱삼국의국적, 1300 명의루마니아와불가리아국적학생들, 1300 명의중국국적, 1300 명의아이슬란드, 핀란드국적, 그리고나머지 800 명의학생들은폴란드국적으로이루어져있습니다.

코펜하겐도시의예측에따르면, 25-30%정도의젊은학생들의증가와다국적학생들의증가로인해 2025 년에는학생들의수가 168,000 명에다다를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하지만그많은학생들은어디서주거하며지낼수있을까요?

물론 ISCC(International Student City of Copenhagen)만이이문제를해결할수있을겁니다.

Jørgen Rossen